

여기에서 사업자(건설사)라 함은 단위 사업장의 주체가 되는 건설사의 주도하에 잔류 생콘크리트가 처리되어야 함에도, 그 환경오염 책임을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무단으로 알아서 처리하고 처벌받으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말 그대로 펌프카를 건설사에 임대 하여주고 그 임대료를 받는 것이며 (현장 출입한 모든 건설기계가 세륜장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척하고 나오 듯이), 임차인은 펌프카를 사용 후 원상복구(잔류 생콘크리트 없는 상대) 된 상태에서 반환하는 것이 상식인 것입니다.

또한 건설사는 위와 같은 처리비용이 도급금액에 포함되었음에도 그 비용을 영세펌프 카 임대사업자에게 전가 시키고 이를 착복하는 실정입니다.

#### 6.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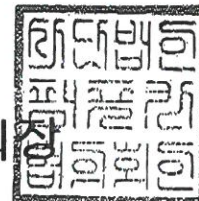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는 위와 같은 영세 펌프카임대사업자의 현실을 헤아려 건설사로 하여금 잔류 생콘크리트에 대한 처리규정을 명확히 하는 환경정책을 실시하여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또한 건설사업자의 현장내 환경오염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8조1에 의거치 않고 불법 반출하는 사례 발생시는 당 협의회에서 공익 보호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환경감시하여 발생현장 고발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1. 폐기물관리법 관련조항 1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 1부, 끝.

사단법인 펌프카협의회



수신처 : 환경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각 건설사